

보령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마무리, 다양한 안건 다뤄

- 후보라·최은순 의원 5분 발언, 김정훈 의원 건의문 채택
- 행감특위 위원장에 김충호 부의장, 부위원장에게 서경옥 의원 선임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 조례안 등 17건 원안가결, 1건 수정의결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제250회 임시회를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13건, 의견제시 3건 등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 후보라 의원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후보라 의원과 최은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후보라 의원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령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필요’를 주제로, 최은순 의원은 ‘보령시 가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언을 진행했다.



▲ 최은순 의원

후보라 의원은 전문가가 포함된 어린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제안했으며, 최은순 의원은 다목적 저수지 개발, 하천 정비정책 확대, 물 절약 포인트 운영을 제안했다.

의원 건의안 1건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정훈 의원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 이전 촉구’ 건의문을 통해, “충남 도유림의 약 50%를 보유한 보령시의 다양한 산림, 해양자원과 문화관광 요소가 결합해 여러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 이전 촉구 건의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보호수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각각 심사해 17건을 원안가결 하고 1건을 수정의결 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에는 조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보호수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해 보호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 조장현 의원



▲ 김충호 의원



▲ 서경옥 의원

12일 열린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뤄 김충호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서경옥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3일과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1,31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했으며, 17일과 18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일부를 삭감·조정했다.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박상모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생동하는 봄의 기운처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보령의 밝은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1회 임시회는 5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운영될 계획이다.

더 빠른 소식을 받으세요~ **보령시 SNS 매체현황**

(2023. 3. 20. 기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anseboryeongsi	팔로워 46,088명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boryeongsi	방문 11,111,142명
	유튜브	https://www.youtube.com/boryeongsi	구독 8,537명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oryeongsi/	팔로워 13,028명
	카카오토리	https://story.kakao.com/ch/boryeong	구독 8,053명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IAXPxb	친구 73,716명